



# 국가수질측정망 대폭 확대된다

- 386개소에서 458개소로 대폭 18.7% 확대
- 수질개선대책의 효과를 117개 권역으로 세분하여 평가관리
- 상·하류간 수질변화 추이분석 보다 정확하게, 위해성 항목도 추가
  - 환경부 고시로 2007년부터 시행

편집부

2007년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망이 현재 386개소에서 458개소로 대폭 늘어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질측정망 개편방향을 고시, 현재보다 72개를 추가해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수질을 측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수질측정망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최근 확정 발표한 “물환경관리 10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수질자료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국가수질측정망 개편의 특징과 주요 내용

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대권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중권역에 따라 각 중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질측정지점 114개를 선정
  - 종전 수질측정망은 수계단위구간 중심으로 설정되어 수질개선 대책의 성과를 권역별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강 28개, 낙동강 33개, 금강 22개, 영산강·섬진강 31개 측정지점을 설치하여 권역별 수질개선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 측정지점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51개 지점은 그대로 활용하나, 30개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권역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이동이 필요한 지점은 33개이다. 다만, 이동대상 지점은 자료의 연속성 유지와 적정성 평가를 위해 이동 전·후 지점을

- 5년간 동시에 모두 측정·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이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새로이 개편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따라 2007년부터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위생지표인 분원성대장균, 부영양화 지표인 클로로필-a 등 총 8개 측정항목이 늘어남.
  - 중금속을 중심으로 9개에 불과하던 건강보호항목을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등 6개 유해물질 등 총 15개 항목을 측정
  - 물의 위생지표인 분원성 대장균군도 추가로 측정하여 물이 분변으로 오염되었는지를 판단
  - 기존항목 중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먹는물 기준 수준으로 강화

(납 : 0.1→0.05mg/L 이하, 카드뮴 : 0.01→0.005mg/L 이하)

구분	항목 및 기준치(단위 : mg /L이하)
현행 (9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 소 : 0.05, 6가크롬: 0.05, ABS: 0.5</li> <li>• 카드뮴 : 0.005(기준 0.01), 납: 0.05(기준 0.1),</li> <li>• 시 안 : 불검출(검출한계 0.01), 수은: 불검출(검출한계 0.001),</li> <li>• 유기인·PCB: 불검출(검출한계 0.0005)</li> <li>※ 기준치가 불검출로 되어 있던 항목은 검출한계를 명시</li> </ul>

구분	항목 및 기준치(단위 :mg /L이하)
신규 (8항목)	< 2007년 추가(6항목)> • 사염화탄소 : 0.004, 1,2-디클로로에탄: 0.03 • PCE : 0.04, 벤젠: 0.01, 클로로포름: 0.08 • 디클로로메탄 : 0.02
	<2009년 추가(2항목)>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 안티몬: 0.02

3. 4대강 주요지점의 측정은 기존 22개에서 분류구간을 세분화하고 분류구간에 영향이 큰 지류의 주요지점을 추가하여 54개로 대폭 확대
- 한강의 경우 주요지점을 의암댐, 충주댐, 팔당댐, 노량진, 가양 등 분류구간 5개 지점을 운영하였으나, 소양강, 영월 등 상류지역과 경안천, 섬강 등 분류에 영향을 크게 주는 지류지점을 추가하여 15개로 확대
  - 상·하류간 및 수계 전체의 수질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질개선대책의 수립이나 평가를 하는데 기여
  - 주요지점은 연간 12회 수질을 측정하는 일반지점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연간 48회 측정하고 있다.

권역	현행	확대	
계	22	54	
한강 (5-15)	북한강수계	의암댐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남한강수계	충주댐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 경안천5
	한강분류	팔당댐, 노량진, 가양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안성천수계	-	안성천3
낙동강 (6-14)	분류	안동1, 구미, 고령, 남지, 물금, 구포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법천2, 내성천3, 금호강6, 남강4
	기타수계	-	형산강4, 학성(태화강)

권역	현행	확대	
금강 (5-11)	분류	옥천, 대청댐, 청원, 공주1, 부여1	옥천, 대청댐, 청원, 공주1, 부여, 갑천5, 미호천6
	기타수계	-	김제(만경강), 동진강3, 곡교천2(삼교천), 논산천4
영산강	영산강분류	담양, 우치, 광주1, 나주, 무안2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 지석천4
섬진강 (6-14)	섬진강분류	주암댐	적성, 주암댐, 계산, 하동, 보성천
	기타수계	-	탐진강3

- ※ 낙동강수계 구미지점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 등 채수에 어려움이 많아 하류지점인 왜관지점으로 변경
  - ※ 호소수 주요지점은 기존 지점과 동일
4. 상수원 상류지역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수질측정을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석호와 하구에도 수질측정망을 새로이 설치하여 수질관리대상 지역을 확대
-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석호나 하구 주변지역이 난개발로 수질 오염도가 증가되고 있어 정기적인 수질측정망이 필요
  - 석호지점 신설(9개) : 매호, 송지호, 영랑호, 청초호, 향호, 화진포호,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

환경부는 수질측정망 개편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실무자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측정망 개편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질측정망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환경부는 수질측정지점 확대와 더불어 수생태 건전성과 공공수역 위해성관리 강화를 위한 수생태측정망 및 위해성측정망 등 다양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물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질측정망 장기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